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사설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호 [루체 제25151호] 주제 105(2016)년 1월 8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총돌격 앞으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의 장엄한 서막이 첫 수소란의 장례 한 폭을 으로 열렸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특히 대사변으로 하여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끌어奔지고 고통로동당제7차대회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조선의 첫 수소란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조국은 수소란에 충분한 해보유국의 철학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사상으로 억칠불하고 종대로 굳건히 펴기로 했던 우리 조국의 운명을 책임진 숙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국자, 강원과 전횡을 것 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위대한 수호자의 대용단만이 이런 자랑스러운 평지를 알아올수 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 신경에 하는

수소란시험의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낳은 특대사

면으로 하여 온 나라에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심과 절대적인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수소란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태양주의 천만년미래를 염려한 민족의 존엄과 존위를 더 높이 떨쳐지고 있다.

우리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우리 조국의 혁명성과 국력을

증명한 철주가 내려지고 최강의

해역제력을 강화하는 우리 민족의

민족적 숙원이 및 나에게 실현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민족은 주체

조선의 해회성을 통하여 철배의 힘

과 용기를 분출시키며 백두의 기상

과 대국적 자존심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결

의에 충만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은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이

며 반체자주의 전초선을 지켜선

불파의 대강국이다. 다만 무조건

내고나오는 조선의 훌륭한 기상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민족사에 걸리고

날 새기적인 기적과 거창한 변화로

로 수놓아지고 있다.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결심은 꼼실 천이고 승리이다.

수소란시험의 완전성공은 밤달을 모르고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의 정장한 시위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숙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국자, 강원과 전횡을 것 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위대한 수호자의 대용단만이 이런 자랑스러운 평지를 알아올수 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 신경에 하는 수소란시험의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낳은 특대사면으로 하여 온 나라에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심과 절대적인 혼란심이 천지로 넘쳐나고 있다. 조국의 북녘으로부터 최전연에 이르기까지 그 어머니 최강의 혁역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와 자부심이 허처나고 있으며 우리들의 사상과 제도를 목숨비치지 않고 천만군민의 혁명신념과 국외의 드립을 더 높이 추구하고 있다. 남녀로소모두가 선군으로 굳건히 다져진 우리 국력의 막강한 잠재력을 대에 하여 제부로 체험하였고 강성국가의 흐름으로 험난한 힘을 올려놓았다. 백두산 대국의 제일국력을 끌어내는 천만군민의 단결된 힘이다.

자주는 정의의 승리는 정의의 힘에 있다. 오늘 해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무궁무진하며 우리 민족의 배심은 백두의 산악과 함께 든든하다. 우리의 자위적 해역제력을 갖춘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힘이며 우리의 삶의 영역을 찰할려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대를 험난한 힘장이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존위를 더 높이 추구하고 있다.

우리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증명한 철주가 내려지고 최강의

해역제력을 강화하는 우리 민족의

민족적 숙원이 및 나에게 실현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민족은 주체

조선의 해회성을 통하여 철배의 힘

과 용기를 분출시키며 백두의 기상

과 대국적 자존심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결

의에 충만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은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이

며 반체자주의 전초선을 지켜선

불파의 대강국이다. 다만 무조건

내고나오는 조선의 훌륭한 기상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민족사에 걸리고

날 새기적인 기적과 거창한 변화로

교훈이며 약육강식의 류형침략이 벌

어지고 있는 오늘의 세계가 보여주는 철리이다.

자주의 길은 백두산대국의 불번의

진로이다. 제국주의의 강원과 전횡이

모르고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의 정장한

시위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숙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국자, 강원과 전횡을 것 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위대한 수호자의 대용단만이 이런 자랑스러운 평지를 알아올수 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 신경에 하는

수소란시험의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낳은 특대사

면으로 하여 온 나라에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심과 절대적인

혼란심이 천지로 넘쳐나고 있다. 조국의 북녘으로부터 최전연에 이르기까지 그 어머니 최강의 혁역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와 자부심이 허처나고 있으며 우리들의 사상과 제도를

목숨비치지 않고 천만군민의 혁명신

념과 국외의 드립을 더 높이 추구하고 있다.

우리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증명한 철주가 내려지고 최강의

해역제력을 강화하는 우리 민족의

민족적 숙원이 및 나에게 실현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민족은 주체

조선의 해회성을 통하여 철배의 힘

과 용기를 분출시키며 백두의 기상

과 대국적 자존심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결

의에 충만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위적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

이고 자주권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란시험에 완전

성공하였다는 결론을 천지로 넘쳐나고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증명한 철주가 내려지고 최강의

해역제력을 강화하는 우리 민족의

민족적 숙원이 및 나에게 실현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민족은 주체

조선의 해회성을 통하여 철배의 힘

과 용기를 분출시키며 백두의 기상

과 대국적 자존심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결

의에 충만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조선은 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이

며 반체자주의 전초선을 지켜선

불파의 대강국이다. 다만 무조건

내고나오는 조선의 훌륭한 기상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민족사에 걸리고

날 새기적인 기적과 거창한 변화로

교훈이며 약육강식의 류형침략이 벌

어지고 있는 오늘의 세계가 보여주는

철리이다.

자주의 길은 백두산대국의 불번의

진로이다. 제국주의의 강원과 전횡이

모르고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주체조선의 막강한 위력의 정장한

시위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숙고한 사명감을 지닌 절세의

국자, 강원과 전횡을 것 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백두산대국, 주체조선은 영원도록 무궁번영하리라!

빛나라이 조선인민공화국!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
대사변을 두고 온 나라가 끊없는
환희와 경정에 넘쳐있다.

온 세계가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이 수소란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멸에 당당히 올라선대 대해 깜짝
놀라며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두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께근하도록 차넘치는
내 나라의 기쁨이고 눈물이 나도록
통쾌한 민족사적장기인가.

어 버이 수령님께서 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에 특기할 수소란시
힘이 가장 원법하게 성공한 오늘의
이 격동적인 현실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리라.

주체조선의 첫 수소란시험 완전
성공이 암달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이 나라의 전민전선,
제자들이 위해 한 수령님들과 드리는
최대의 경의, 최고의 선물이며 당제
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을 대표
하여 주제 104(2015)년 1월 2월
15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란시험을
진행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지난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의거해 앞날 경제건설과 핵무력전
성을 방진시킬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눈부신 대승리이
며 당의 명도따라 고난과 시련속에서
도 얹혀갈까 딴지고다려온 선군조선
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최고파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이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수소란시험의 완전성공은 막강한
국력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가 존재한
다고 하지만 제7회로 수소란까지 보
유한 나라가 과연 몇몇인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조선의 수소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따라 제7회로
부진막강한 국력을 더니온 선군조선
의 자강증의 고keh한 열매이다.

우리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
계인 이번 수소란시험은 우리 인민
이 자기 손으로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출 존엄높은 군사·군대와 인민의 존엄은
없이 떨어져 하였고 주체조선, 선군
조선을 수소란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세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대표
하여 주제 104(2015)년 1월 2월
15일 주체조선의 첫 수소란시험을
진행함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데
이어 지난 1월 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신 소식을 실은 달보를 보고
또 보여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국력을
온 누리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
에 넘쳐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필승의 선군정치로 우리 군대를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
고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와 세계의 평
화를 수호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미
제의 반공화국압박총파동과 무분별한 핵
전쟁도발에 지금까지 어느 하루도
그친적이 없었다. 미제는 우리 조국의
평민인 국민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를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가 선군의 기지를 높이 추켜세우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
방력을 얹혀갈까 딴지고나라의 생
명인 국권을 뻔뻔히 지켜온것이 얼
마다 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 두렷
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국력이 강장한 자가 나라, 자가 민
족을 지키고 국력이 약한 제국주
의에 먹히우고만다.

주체과학, 주체공업의 위대한 승리 – 우리 당의 병진로선 만세!

조선의 국력에는 한계가 없다

온 나라가 환희와 경격의 바다로 일렁이고 있다.

반만년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으로 삼천리에 걸친하고 세계를 뒤집어놓았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주체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위한 내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시위한 이 사건이 안고있는 시대적인 폭파부제는 실로 거대하다.

이번 수소탄시험에서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만방에 펼치게 되었다.

주체조선의 수소탄, 이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의 산아이고 위대한 승리이다.

역사는 똑똑히 보았고 자기감과에 뿐만 아니라 새겨 넣었다. 청소년 공화국이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던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 자주인이 어떻게 수호되었고 장장 반세기 이상 핵전쟁의 걸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조선이 어떻게 자기가 빼한 길을 끌어온가를 기억하고 있다.

병진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남아 있는 한 우리 강, 우리의 운명, 우리의 위업은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자위의 정신을 만장장하고 총대를 얹쳐같이 베어면서 행복을 가꾸어온 우리 인민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몇 갑질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궁지 놓이, 승리를 학관하며 걸어온 길이었다.

그 길에서 암아온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 민족만대에 전해갈 평화기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우리 수소탄시험성공소식에 병진이라는 두 글자를 걱정의 눈물속에 외우고 또 외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의 계승이며 경제발전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이 병진의 구호를 추구한 때로부터 장장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조국과 세계 혁명발전에 커다란 난국이 조성되었던 1960년대 초였던 수령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있었던 때 우주의 운명이 어떻게 수호되어야 하는 백두산대국을 일사분영하는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전환기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날마다 우리는 뚜렷이 즐거워졌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파국과 전략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힘승의 진로임을 지나온 나들은 뚜렷이 즐거워해주었다.

그렇게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아니면 자주의 성새를 지키느라 하거나는 바를 헤쳐싸움에서 우리 장군님에게는 높이 추구드신것이 선군의 가치였고 병진로선이었다.

지금도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